

# 벤투·김학범, 축구 발전 위해 손 잡았다

연령대별 대표팀 감독 포함 2시간 가량 첫 회의  
“취지 굉장히 좋아...자주 만나 의견 공유하자”



한국 축구를 짊어준 연령대별 지도자들과 책임자 한 자리에 모였다. 파울루 벤투(49) A대표팀 감독, 김학범(58) U-23 대표팀 감독, 정정용(49) U-19 대표팀 감독 등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전날 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벤투 감독은 편안한 분위기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벤투 감독을 직접 뽑은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과 최영준 기술발전위원장 대행, 서효원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팀장, 미하엘 뮐러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정책자문도 참석했다.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인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19세 이하(U-19) 대표팀 감독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명의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지난달 A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우승과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 나아가 월드컵에서의 호성적을 목표로 잡았다. 길게는 4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사령탑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벤투 감독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모든 이가 모인 자리에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추후 대표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어린 선수

들의 내용과 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미팅은 시작에 불과하다. 추후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방안을 찾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라면서 “(어린 선수들은) 앞으로 A대표팀에서 활약할 이들이기에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전례 없는 모인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자리가 없었다.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면서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벤투 감독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연령별 대표팀 발전을 위해서라면 양보를 해서라도 열어 주겠다’고 했다. 이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협회가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시인하면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겠다고 약속했다. “축구 협회가 생각하는 철학들이 대표팀에서부터 유소년까지 모두 공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술구조상 소통의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도 여전히 많다”면서 “이제는 고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령대별 대표팀도 눈앞의 성적 이 아닌 선수 발굴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령대 대표팀에서는 팀을 자주 발전시키기보다 선수들(상위 대표팀으로)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이 재정비 돼야 한다고 전했다.



## ‘태권도 스타’ 이대훈, 통산 10번째 월드컵 정상

한국 태권도 간판 이대훈(26·대전시체육회)이 월드컵태권도그랑프리에서 개인 통산 열 번째 우승을 이룩했다. 이대훈은 19일 대만 타이위안 아레나에서 개막한 2018 월드컵태권도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 남자 88kg 결승에서 미르하셀 호세이니(이란)를 13-9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태권도 종목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했던 이대훈은 월드컵태권도그랑프리에서도 10번째 금메달을 수확하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이대훈은 올림픽랭킹 1위 자리도 유지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올

림픽 랭킹포인트 40점과 더불어 5000달러의 상금을 준다. 이대훈은 “열 번째 그랑프리 우승이라는 큰 경험을 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선발전이 있다”며 “한 대회 한 대회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여자 67kg급 오혜리(춘천시청)와 김진태(삼천포시청)는 나란히 3위에 올랐다. 올림픽랭킹 1위 오혜리는 준결승전에서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미국의 페이지 맥퍼슨에 11-13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진태는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풀리나 칸케에 8-13으로 패했다.

## 수원 삼성·제주 유나이티드, FA컵 8강 맞대결

유일 K리그1 소속팀 격돌

◇FA컵 8강 대진추첨 결과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가 2018 KEB하나은행 FA컵 준결승 길목에서 만났다. 두 팀은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회 8강 대진 추첨 결과 맞대결 상대로 확정됐다. 8강 대진 중 유일한 K리그1(클래식) 소속팀끼리의 격돌이다. 통산 4회 우승으로 포항 스틸러스와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 중인 수원은 난적 제주를 상대로 4강 진출에 도전한다. 장소는 수원의 홈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이다. 경기일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수원을 배려해 양 구단이 협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세 경기는 모두 다음달 3일 진행된다.

- ▲전남드래곤즈 vs 아산무궁화FC(광양축구전용경기장)
- ▲목포시청 vs 대구FC(목포축구센터)
- ▲울산현대 vs 김해시청(이상 10월 3일·울산문수축구경기장)
- ▲수원삼성 vs 제주유나이티드(수원월드컵경기장)

전남 드래곤즈는 아산 무궁화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무너뜨리며 내셔널리그의 돌풍을 주도 중인 목포시청은 대구FC를 제물로 또 한번의 이변을 준비한다. 지난 대회 우승팀 울산 현대는 김해시청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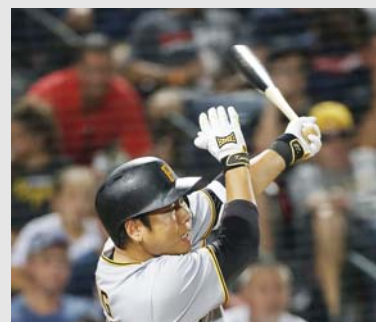
## 강정호, 시뮬레이션 게임 소화... “시즌 내 ML 복귀 배제하지 않아”

“피츠버그 구단, 가을 교육리그에 참가하라”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소화하며 복귀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강정호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던턴의 피츠버그 구단 훈련장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에 나서 몇 차례 타석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가 가을 교육리그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4월 말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훈련에 나섰다. 6월부터 싱글A와 트리플A 경기에 나서며 빅리그 복귀를 노렸다. 싱글A 7경기에 출전해 타율 0.417(24타수 10안타) 3홈런 11타점을 기록한 강정호는 곧바로 트리플A로 승격돼 9경기에 출전, 타

율 0.235(34타수 8안타) 5타점 3볼넷 4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강정호는 지난 6월 20일 트리플A 경기에서 도루를 시도하다 왼 손목을 다쳤고 결국 8월 초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복구에 4~6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 강정호는 실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와 계약기간 4+1년, 총액 165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올해가 보장



계약의 마지막 해다 내년에는 연봉 550만 달러의 구단 옵션이 걸려 있다. 뉴스스

■ 실이 있는

#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갈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